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빈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수자 정체성의 자화상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도 아

소수자 정체성의 자화상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임 상 빈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도 아

인 준 서

김도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박영근 (인)

심사위원 임상빈 (인)

심사위원 조병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21년 1월, 석사청구 전시인 “김태연김도아: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발표된 작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좌절의 경험을 한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다. 내 경우에는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저항의 기로에서 크게 방황했다. 점차 사회로부터 유리되는 느낌은 곧 고립감과 우울증을 동반했다. 나는 이 압박감을 해결하고자 여러 방법을 시도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이 논문은 이와 관련된 치열한 삶의 여정이다. 우선,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동기를 기술한다. 본론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소수자 혐오를 분석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 성소수자 등 개인적인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 여전히 소수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편한 존재로 남아야 했던 순간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나옴의 이론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테면 소거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성해 정체화에 활용한다. 젠더정체성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피력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호와 환경까지 이용하여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 작품을 분석한다. 화면 안의 얼 굴이 없는 신체에 나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투영한다. 선택적 소거를 활용한 신체 표현을 이용해 ‘나’를 자화상이라는 형식으로 담는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핵심 표현기법인 ‘뉘기’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내가 직면한 문제를 나뉘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예술적인 언어로 가감 없이 표현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불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내게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이를 통해서 삶의 실천과 예술적 시도가 동시에 어울리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다시금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논문을 통해 우리 시대의 특정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일종의 예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나 또한 평온한 일상을 바라며 평등한 사회를 희망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 이면에는 여전히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체성이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보다는 마음먹기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나만의 주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풍요로운 토양이 되어야 한다. 이 토양 안에서 예술을 단비 삼아 얻은 성장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예술이 각양각색이듯이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 다 다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사회는 예술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더욱 필요하다. 이 논문이 다름의 혐오를 다양성의 희망으로 만드는 지지대 역할이 되길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배경	2
1) 혐오의 꼬리표	2
2) 소수자 은폐	5
2. 작품의 내용적 연구	7
1) 자아탐색 : 커밍아웃으로 언어 얻기	7
2) 기호 탐구: 신체와 의복의 표준화 허물기	10
3) 가상의 환경 : 주도권 만들기	13
3. 작품의 조형적 연구	16
1) 자화상	16
2) 기호제거	21
3) 다향내기	24
III. 결론	2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01>, 아크릴과 성냥, 2020
- [작품 2]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02>, 05:15, 단채널 영상, 2020
- [작품 3] <스스로 장례 치르기01>, 195×230cm, 캔버스에 유화와 파스텔,
2020
- [사진 1] <깜빠얀김도아: 주인공이 되는 방법> 전시 전경, 2021
- [작품 4] <29>, 19.5×14.5cm, 종이에 연필, 2013
- [작품 5] <기억 밝기01>, 130×162cm, 캔버스에 유화와 파스텔, 2020
- [작품 6] <선 위의 염탐자01>, 77×130cm, 캔버스에 유화와 파스텔, 2020
- [작품 7] <700년 동안 내가 해온 것02>, 146×112cm, 캔버스에 유화와 파
스텔, 2020

I. 서론

예전에 나는 이유 없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무엇이 나에게 불면증을 선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일상의 대화에서 부딪힐 때마다 오는 괴리감과 남들과는 다른 관심사들이 시작이었던지도 모른다. 잠들 수 없는 날이면 삶에 지나간 일들을 누워서 곱씹었다. 나는 이 해답을 찾을 때까지 불면증이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논문 연구는 내가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느꼈던 원인 모를 불안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인간을 하나의 면으로 압축시켜 볼 수 없듯이 내가 일상에서 느낀 위화감을 하나의 문제로 압축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원인을 끊임없이 찾고자 했고 나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를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자아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예술로서 소수자의 삶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론은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뉜다. 첫 번째 장에서 한국 사회의 소수자 혐오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방법을 기술한다.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는 앞의 이론을 토대로 예술적 방법론으로 확장한다. 이는 나의 경험과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에서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분석하고자 한다.

근 몇 년 동안 자의든, 타의든 많은 소수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모든 소수자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쓴다. 나의 연구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안전한 삶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써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II. 본 론

1. 배경

1) 혐오 꼬리표

참을 수 없는 차별의 민낯을 강렬하게 인지했던 것은 성폭력을 겪었던 사건을 가족에게 들켰을 때였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본 날이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일기장을 훑쳐보고 유치원 때 성폭행을 겪었던 일을 모르다가 알게 되었을 때 분노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나에게 향했다. 그들은 성폭행을 나의 탓으로 돌렸고 나를 부끄러워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온이 깨져서 오는 불쾌감을 가감 없이 들어내어 나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 내가 겪었던 폭력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여 역으로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다독여주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을 사랑하고 희생할 것을 내게 강요했다. 그 후 나는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기까지 약 5년이 걸렸고 여전히 집 안에서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가정에서 받은 소외를 가정 밖에서 위로받고자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 사회의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꼬리표를 깊게 각인하며 나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아픔과 치유를 중시하지 않고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지우고 한 인간이 아닌 한 공동체의 부품으로서만 바라보는 시선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 안에 개인의 경험 지우기가 일어나며 이는 인간성이 상실로 이어진다.

우리는 가정으로부터 느끼는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집을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혹은 그 반대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헤겔은 인간은 우선 자기의식을 갖는 존재이며 마찬가지로 자기의식을 갖는 ‘타자’와의 투쟁에 의해 절대 지(知)나 자유나 시민사회를 향해 가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헤겔은 이 투쟁의 과정을 ‘역사’라 불렀다.¹⁾ 인간은 혐오를 합리화하며 차별을 견고하게 하고 반대로 사회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바꾸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 속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 한 발자국 물러서기도 하고 한 발자국 나아가기도 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은 조금씩 바뀌었으나 새로운 혐오가 다시 그 자리를 채웠다. 매번 점화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는 조금씩 형태를 달리한 채로 사라지지 않고 존재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1989년도로서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성별 감별을 통한 여아 낙태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태아의 성감별과 여아의 인공유산과 같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원하는 성별의 선택이 가능하게 됐고,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딸을 낙태할지, 또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임신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감별 낙태로 자녀의 인위적인 성별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들어 ‘남아선호’는 ‘성비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로 새롭게 가시화되기 시작했다.²⁾ 내가 속한 가정도 시대 흐름에 따라 남아를 바랐지만 나는 집안의 바람과 달리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다. 손녀를 원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내 위의 두 명이

1) 아즈마 히로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이은미 역, 문학동네, 2007, p.116-117

2) 이정희, 「남아선호에 대한 지배담론과 저항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의 출산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998

벋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면 이름뿐만 아니라 성별 감별로 인해 삶 또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는 비단 나뿐만 아니라 80~90년도에 태어난 여성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뻔했었다는 이야기가 잊을만하면 들었다. 불합리한 가부장제 속에서 하나의 목숨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을 감별당하며 목숨 값을 저울에 달았다. 남아를 낳기 위해 의도치 않게 낳은 아이라는 폭력은 어릴 때는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외로움으로 다가오다가 인생의 분기점에서 우리는 위화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서서히 알게 된다.

고통은 만인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동일한 강도나 동일한 형태, 동일한 고통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역치에는 개인차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³⁾ 이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소수자, 생물학적 여성, 성폭력 생존자 등 정체성으로 인해 나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체성과 특정 환경이 맞물림으로써 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사회 규범들이 나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왔고 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박탈감을 느꼈다. 사회 관념들에 의문을 제기할 때 동시에 그 의문은 자신을 향하기도 했다. 사회 속 실존의 불안과 공동체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상태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고 이는 나에게 공포감과 상실감을 조성했다. 결국 깨진 일상을 추스르는 것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소수자의 위치에서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소수자가 사회와 불화하는 지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혐오에 관해 다시 한번 환기해보고자 한다.

3) 우치다 타츠루,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이경덕 역, 2010, p.107

2) 소수자 지우기

왜 어떤 사건은 선택적으로 억압되고 비밀에 부쳐지고 은폐되었는가? 왜 어떤 사건은 기술되고 어떤 사건은 기술되지 않았는가?⁴⁾ 라는 푸코의 질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은폐를 들여다봤다. 그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사회와 맞물린 나의 정체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체성을 중심으로 겪었던 일들을 복기해 기술했고 이는 나의 작품의 밑거름이 됐다.

어릴 때 어머니는 의도치 않게 어린 나를 종종 잃어버렸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찾지 않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머니를 찾기 일췌었다. 이를테면 동대문과 평화시장 한복판에 버려진 나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 부모님을 찾아다니거나 스스로 경찰서를 가서 주소를 말하는 노력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성인이 되어 부모님에게 물어보니 기억에 없으셨다고 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남동생 때문에 힘든 자신의 삶을 나에게 토로했다. 이 간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삶의 고통을 무게를 달아 줄을 세울 수는 없다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나의 고통은 집안에서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됐다. 첫째 자식이 딸이라서 시집살이를 했고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했던 자신들의 고통을 우선 둠으로써 나는 겪었던 고통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나에게 심리적 괴로움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노력했으나 매번 돌아오는 같은 태도에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풀리지 않는 외로움을 집 밖에서나마 해소하려 했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벽을 쌓았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회 안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면 각기 다른 이유로 비슷한 고립감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공동체

4) 우치다 타츠루, 위의 책, p.92

안에 있어도 심리적으로 공동체 밖에 있는 분리 경험은 끊임없는 괴리감을 만들어내고 이는 삶의 회의감으로 이어진다.

미디어에서는 동성애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단어는 남성 간의 우정을 뜻하는 브로맨스라고 치환되어 불린다. 이 브로맨스를 향유하고 있는 대중들은 이제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의 상업화된 이미지 속에서 여전히 성소수자들은 가상의 존재로 남는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가상의 존재로의 변화는 사회 안에서 성소수자가 실존한다는 체감에 힘을 보태지 못했다. 또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성소수자는 기존의 남/여라는 성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재해석되어 여성스러운 게이와 남성스러운 레즈비언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를 생산한다. 결국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기존의 젠더 이분법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단어 사이 안에서만 인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정체성들이 가시화되지 못한 채 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유성애의 기준으로 무성애자는 지워지고 규정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부된다. 대선 기간 때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뜨거운 감자가 되는 동시에 나중으로 미뤄졌다.

과거에는 사회 시스템의 순응하는 대가로 안전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회 문제들을 과다하게 접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더 사회에서 불안을 강하게 체감한다. 그렇기에 불신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회의 안전망은 사회, 교육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또한 같이 바뀌어야 하므로 한 개인이 쉽게 바꿀 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립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2. 작품의 내용적 연구

나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안의 소수자 혐오를 살펴 보았다. 이제부터 앞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사회에서 느꼈던 무기력함을 해소하고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한다. 우선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다루며 다음으로 언어, 기호,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피력하는 방식을 서술한다.

1) 자아탐색 : 커밍아웃으로 언어 얻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해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 또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나는 정체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루는 언어 찾기부터 시작했다. 그다음 사용한 구체적 방법은 정체성 형성을 통한 커밍아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를 붙여 정체성을 부여하는 순간 막연했던 불편함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되며, 삶의 의문을 해결하려는 의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체성 탐색이 능동적인 삶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연애를 통해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레즈비언⁵⁾으로 첫 정체화를 했다. 그 후 고등학교 3학년부

5) 레즈비언(Lesbian): 다른 여성(women)에게 끌리는 여성.
에슐리 마텔, 「LGBT+ 첫걸음」, 팀 이르다 역, 2017, p.12

커밍아웃을 했지만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같은 성적지향성⁶⁾을 가진 친구가 없었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을 성소수자가 아닌 친구들에게 밝힐 순 있어도 그들의 연애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20살 때 또다시 연애하면서 양성애자⁷⁾로 정체화했다. 성별이 남자인 애인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나의 연애에 관심 없던 친구들이 나의 연애에 호기심을 비추며 끊임없이 질문을 하던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나는 긴 고민을 시작했다.

양성애자로 정체화를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안의 불편함을 모두 해소할 수 없었다. 내가 무엇으로 보이고 싶은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2016년에 범성애자⁸⁾로 한 번 더 커밍아웃 했다. 원하는 모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과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의 범위를 좁혀 나갔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수식어구를 하나씩 소거하는 방법으로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을 탐색했다.

이따금 사람들은 성소수자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다고 오해를 한다. 어떤 이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갑자기 깨닫게 되지 않는다. 정체화는 탐색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 하나씩 배우면서 한 발자국 나아가 찾는 것이다. 또한 커밍아웃이 성소수자의 기나긴 여정의 끝이라고 비치기도 한다. 커밍아웃은 정체화 과정의 완결이 아니다. 덧붙여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찾는 여정에서 자신의 모습이 확장하는 것이다.

나는 젠더퀴어⁹⁾로 정체화했지만 안주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6) 성적지향성: 그 사람이 누구에게 성적으로 끌리는지 혹은 끌리지 않는지를 나타낸다.
에슐리 마텔, 앞의 책, p.175

7) 양성애자(Bisexual): 둘 혹은 그 이상의 젠더에게 끌리는 것.
에슐리 마텔, 앞의 책, p.14

8) 범성애자(Pansexual): 어느 젠더에게든 끌림을 느낄 수 있거나, 모든 젠더에게 끌림을 느낄 수 있는 것.
에슐리 마텔, 앞의 책, p.25

9) 젠더퀴어(Genderqueer): 본인의 젠더가 사회의 이분법적 젠더 개념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를

던진다. 태어나면서 사회에서 여성의 성별로 지정받았지만, 나는 나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남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 나는 이에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었다. 긴 기간을 불편한 기분으로 보내다가 젠더정체성¹⁰⁾ 언어를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를 비시스젠더¹¹⁾로 처음 정체화를 할 수 있었다. 그 후 바이젠더¹²⁾였다가 긴 기간을 안드로진¹³⁾으로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젠더퀴어로서 살고 있지만 정체성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이렇듯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탐구적 자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물론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주위에서 거부반응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커밍아웃으로 인한 해방감보다 거부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클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위험을 동반한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려고 할 때 스스로 내면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우울함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느끼는 막연한 불편함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삶은 다르다는 고립이 아니라 특별하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넘어선 사람.

애슐리 마텔, 앞의 책, p.22

10)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 한 사람이 스스로의 젠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회적 젠더 시스템의 안팎을 어떻게 탐색하는지, 혹은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바라는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체성의 표지.(혹은 이름표가 붙이지 않은 정체성)

애슐리 마텔, 앞의 책, p.21

11) 시스젠더(Cisgender): 태어날 때 지정된 섹스 혹은 젠더가 젠더정체성과 일치하는 사람.

애슐리 마텔, 앞의 책, p.16

12) 바이젠더(Bigender): 두 젠더를 갖거나 경험하는 사람.

애슐리 마텔, 앞의 책, p.14

13) 안드로진(Androgyne): 남성(man)이면서 동시에 여성(woman)이거나,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아니거나, 남성과 여성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논바이너리 젠더.

애슐리 마텔, 앞의 책, p.16

2) 기호 탐구: 신체와 의복의 표준화 허물기

내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신체와 의복의 기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신체에 적극적으로 욕망을 투출한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언어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언젠가 한계점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미지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2019년에 가슴 축소수술을 결정하고 1300g의 무게를 제거했다. 1300g이 넘는 무게는 하루 종일 어깨를 짓눌렀다. 옷의 사이즈는 물론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지장을 주었다. 달리지도 못했고 요가밖에 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후 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이 만성적인 어깨결림과 체력의 저하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나와 같은 병명이어도 남성은 유방비대증¹⁴⁾이라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보험이 가능하지만 나는 생물학적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병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 신체를 마주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인지함에 따라 나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는 신체에 대한 정신적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식의 변화도 동일했다. 나는 수술 후 달라진 몸을 통해 신체가 개인의 행동을 한정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신체가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면서 그전에 할 수 없었던 달리기도 가능해졌다. 해방감이 남다르게 다가왔다. 또한 ‘가슴이 커서 좋겠다’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었다. 신체의 형태가 달라져 자연스럽게 입던 옷이 바뀌면서 동시에 나를 이루던 단어들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예컨대 부치¹⁵⁾ 같다는 말을 자주

14) 유방비대증: 한쪽 유방이 400g 이상인 상태. 일반적으로 한쪽 유방이 400g 이상이면 유방비대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 유방비대

<https://terms.naver.com/alikeMeaning.naver?query=88221203>

들었다. 그러나 나는 부치로도 펌¹⁶⁾으로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또 다른 고민을 시작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에 만들어진 이미지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해석하려 한다. 푸코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知)와 권력이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표준화’¹⁷⁾라는 방향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표준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중에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 ‘신체’에 대한 표준화의 압력이다.¹⁸⁾ 처음에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표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다가 한 번은 회의감을 느끼곤 한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이 표준적 기준에 의구심을 갖게 하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재고하는 지점을 만들어준다.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모델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성 역할에 들어맞기를 거부하는 한, 예컨대 외과적 수술을 통해 특정 성별로 (재)지정되거나 특정 성별에 적극적으로 동일시하기를 거부하는 한,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약간의 살을 제거한 것뿐이었지만 나는 이를 통해 주어진 신체의 변형을 경험하며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 물론 육체의 제약이라는 것은 삶에서 넘을 수 없는 고비 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15) 부치(Butch): 레즈비언 커플 가운데 전통적 이성애 관계에서 남성적 행동을 취하는 대상을 이르는 말. 남성적 복장을 하거나 대상과의 관계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이버 사전 - 부치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5ba12c8fcb44e2bb9b85aaldbecac3a>

16) 펌(Femme): 레즈비언 커플 가운데 전통적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적 행동을 취하는 대상을 이르는 말. 여성적 복장을 하거나 대상과의 관계에서 열등한 위치를 점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이버 사전 - 펌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e35d179c9a6486fab66baad2183062b>

17) 표준화: 자재나 제품의 종류, 품질, 모양, 크기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함. 네이버 사전 - 표준화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1783362da6745a9abl1ad8alb7015b>

18) 우치다 타츠루, 앞의 책 p.100

19) 성과재생산포럼, 「패들그라운드-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2018, p.245-250

이를 불가능한 도전이 아닌 가능성을 넓혀 보는 시도로서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2018년~2019년에 두 번의 상복을 입을 일이 있었다. 나는 남성과 여성의 상복 중에 하나를 입어야 하는 선택에 직‘면했다. 남들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서는 괴로운 일이었다. 첫 번째로 상복을 입었을 때는 상복을 따로 신청할 시간이 없어 손에 여성 상복이 쥐어졌다. 그래서 나는 치마를 입지 않고 검은색 바지 위에 여성 상복 상의만 걸친 채로 장례식장에 섰었다. 두 번째 장례식에는 남성 상복을 입을 수 있었으나 앞의 경험보다 기분이 나아지질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불편해졌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길 바라는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위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선택지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복장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않은 채 오늘도 남자 혹은 여자처럼 보이지 않은 옷을 고민한다.

옷이 성별을 나누며 제조되지 않았지만, 매장 안에서 각각 여성복과 남성복 코너에 진열되면서 나뉜다. 옷을 둘러보고 있을 때 직원이 나에게 여성복 코너를 안내했다. 반복적으로 권유했고, 나는 안내를 거절하기 위한 수십 가지의 이유를 생각하며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 성별 구분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는 것은 나뿐만 아닐 것이다. 패션계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중립적인 성별을 나타내는 ‘젠더뉴트럴’과 남녀 구분 없는 ‘유니섹스’ 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성별을 가르지 않은 옷 매장이 늘어났다. 우리가 모른 사이에 사회의 성별 구분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였고 나는 이 변화가 이를 분출하려는 시도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복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다른 요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에서는 신체와 옷을 한정하여 연구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들어낼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다. 그렇기에 자신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의심해보고 자주적인 선택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편한 기호를 제거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 보아야 한다.

3) 가상의 환경 : 주도권 만들기

이 장에서는 가상 공간을 활용해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서술한다. 이것의 목적은 자신을 이루는 환경을 재조성하여 관계의 전환을 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을 파악하고 이를 지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환경과 거리를 두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오랫동안 자신을 이뤄왔던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을 분석하는 것에 용기를 가져야 한다. 환경을 낫설게 보는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상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 정체성은 개인 고유 개별성이지만 사회 안에서 재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 맥락과 별개로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에 봉착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관계의 실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현실(present)은 특정한 위치(position)에서 언어를 만드는 권력에 의해 구성된 재현(re/present)이라 보아야 한다.²⁰⁾ 현재 우리가 있는 장소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태어나면서 주어진다. 운이 좋으면 나에게 호의적인 환경을 부

20) 정희진 외,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2017, p.26

여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기존 권력이 부여한 관계에 의해 겪는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혐오를 마주하지 않길 바라며 운에 의지할 것이다. 이는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킨다. 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끊임없이 갈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시작한 세계화는 현실보다 견고한 가상의 세계를 구축해냈다. 가상 세계는 이제 개인의 일상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 가상이 현실을 대체하는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SNS, 게임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가공한 또 하나의 자신을 생성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현실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여 온라인 세계에 도피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또 다른 삶을 누리는 시대인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공간마다 제약이 있듯 한계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비하여 느슨하게 작용한다. 이 장점은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관계의 맺고 끊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부득이하게 수궁해야 했던 공동체를 위한 관계 맺기가 아니라 타인과의 선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립적인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내보이고 싶은 자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맺을 것인지, 어떤 공통점을 찾아 나눌 것인지 설정한다. 더불어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끊을 것인지도 자신의 마음이다. 주체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 세계가 현실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대안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현실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의 규칙을 벗어나 스스로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안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민하고 한편으로 용기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또한 성소수자, 성폭력 생존자, 여성으로서 겪었던 사회의 벽에 대해 나누기 위해 가상에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설정을 할 수 없는 현실보다 원하는 대로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가상은 나에게 더 안전하고 편한 공간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상에서 나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를 하며 정체성을 다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가상에도 항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현실로부터 고립의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 나는 가상이 임시적 거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작품의 조형적 연구

3-1) 자화상

전통적 회화의 역사에서 자화상의 목적은 화가가 스스로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외형적 모습의 묘사 위주로 그려진 그림이지만, 현대미술에서 자화상의 개념은 외형적 특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내면의 표현을 위주로 하여 외적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 표현까지 자화상으로 표현되며 자화상의 영역이 보다 확장되었다.²¹⁾

나 역시 자화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러나 내가 그리는 자화상은 나의 내적 고통에 대한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경험담을 담는다. 이를 위하여 나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화면의 인물을 설정한다. 그렇게 생성된 인물들은 나의 자아를 투영했지만 나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나는 나로부터 출발한 또 하나의 가상의 자아를 만들어 직관적으로 내면의 심상을 표출하기 보다 나의 삶을 재가공한 인물을 통해 하나의 세상을 담는다. 또한 자화상은 나에게 정체성을 펼치는 장인 동시에 현실에 벗어나기 위한 장치이다. 더불어 사회에서 받은 소외감으로 인한 상처를 돌보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투명한 아크릴 박스와 성냥으로 구성된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01>와 5분의 단 채널 영상인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02>는 연작으로 각각 설치와 영상으로 구성된다.

21) 허수빈 「현대인의 타의적 정체성에 대한 회화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2020



[작품 1]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01>, 아크릴과 성냥, 2020

설치 작품인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01>는 ‘김도아’라고 새겨진 2개의 투명한 아크릴 성냥갑과 그 안의 가득 찬 성냥들로 구성된다. 각각 박스 안에는 연소한 성냥들이 쌓여있다. 두 박스 안의 모든 성냥들에 아세톤을 이용해 전사를 이용하여 ‘김미연’이란 이름을 새겼다. ‘김미연’은 ‘김도아’로 살기 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름이다.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받지 못한 이름을 절 안의 스님에게 급하게 물어봐 얻은 것이 ‘김미연’의 시작이었다. 동생 이름에는 할아버지의 정성이, 다른 친척들의 이름에는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이름에 정을 붙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 인 아름다울 미(美)와 연꽃 연(蓮)은 이름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을 더욱 커지게 할 뿐이었다. 나는 값어치 없는 이름을 값지게 만들기 위하여 개명을 결심했다. 개명할 이름에 스스로 정성을 쏟아부었다. 개명을 완료하고 관공서에 서류를 돌린 뒤 새 이름을 쓰기 시작했지만 ‘김미연’이란 이름을 잊을 때쯤 그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가 나타났고 이는 내게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김도아’는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김미연’이라는 이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이 되었다. 이를 ‘김도아’ 이름이 새겨진 투명한 아크릴 성냥갑과 그 안의 태워진 ‘김미연’ 성냥으로 표현했다. 나는 ‘김도아’를 생산하기 위해 이

성냥들을 계속 태우고자 한다. 이러한 ‘김미연’을 제거하는 과정을 성냥을 태우는 행위에 빗대어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02>에 담았다.



[작품 2]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02>, 05:15, 단채널 영상, 2020

영상 안의 나레이션은 이름의 유래와 이름을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실에 비유한 이야기이다. 영상의 나레이션을 통해 ‘김도아’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를 목소리로 발화함으로써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를 통해서 나는 나의 소외감을 작품을 통해 전면으로 드러내 외면받았던 나의 삶의 당위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스스로 장례 치르기> 연작은 백색 공간 안에 있는 인물이 선에 저항하는 장면을 담은 작품이다. <불이 꺼져도 재는 남는다> 연작은 설치와 영상이라는 매체 안에 이야기성을 강조하여 나의 삶을 통째로 전면에 새운다. 하지만 <스스로 장례 치르기> 연작에서는 파스텔과 유화를 사용하여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화면은 백색 공간에 있는 주인공이 선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순간을 담는다.



[작품 3] <스스로 장례 치르기01>, 195×230cm, 캔버스에 유화와 파스텔, 2020

선 때문에 얼굴이 걸려 보이지 않은 인물은 허공의 선을 향해 스스로 온몸을 내던진다. 이러한 얼굴 없는 자화상은 “김미연김도아: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전시된 작품들에 꾸준히 등장한다. 얼굴의 묘사를 배제하는 이유는 얼굴에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양이 가장 많이 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얼굴을 가림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한 환기점이 발생하길 원했다.

<스스로 장례 치르기01>는 왼쪽의 120호 크기의 캔버스와 오른쪽의 50호 크기의 캔버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는 회화에 만화적인 연출을 결합한 것으로 하나의 그림이지만 동시에 관객이 분할된 두 화면으로 인식하길 바랐다. 만화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칸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과 개념, 행위, 그리고 위치와 장소를 담기 위해서 공간 속을 움직이는

일련의 그림들을 칸 속에 집어넣는다.²²⁾ 화면의 칸으로 인하여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백색 배경에 다다르게 한다. 이는 확대한 인물을 비춘 다음에 광활한 배경을 보여주는 만화적 연출을 회화에 시도한 것이다. 동시에 세로로 긴 화면에 가득 찬 인물과 작지만 빈 공간의 대비를 활용해 긴장감을 더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페인팅 자체에서도 온다. 나는 유화로 페인팅하는 과정이 내포한 즉흥성이야말로 삶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며 삶은 사건을 온몸으로 부딪혀 치열하게 해결해나가는 순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으로 작업 과정을 설계하여 그리는 작가도 있겠지만 나의 페인팅은 닦아내고 비벼내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돌발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스스로 얻은 성장이 페인팅을 통한 작업 과정과 맞닿는다.

자화상은 다른 방식의 그림보다 개인의 내면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김파연김도아: 주인공이 되는 방법”의 작품 배치와 공간 활용에서도 개인적인 공간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성했다. 먼저 가벽을 세워 원룸 같은 밀폐된 사각형의 형태로 공간을 조성했다. 그리고 그림 간의 중심점을 가운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에 물건을 쌓아 둔 것처럼 위와 아래 다양하게 배치했다. 특히 바닥에도 그림을 기울여 놓혀두었는데 이는 시각의 동선을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자취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처럼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안에 가벽을 하나 더 설치해 방안의 방으로 만들어 가장 안쪽에 나의 이야기가 제일 직접으로 드러나는 <불이 꺼져도 재는

22) 월 아이스너, 「그림을 잘 엮으면 만화가 된다」, 이재형 역, 현실문화연구, 2000, p.40

남는다> 연작을 배치했다. 나는 이를 통해서 관객이 몰래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자 의도했다.



[사진 1] <김파연김도아: 주인공이 되는 방법> 전시 전경, 2021

나의 삶이 자화상을 만드는 토양이 되지만 동시에 자화상을 그리고 한 단계 성장하면서 나라는 열매를 맺는 과정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람자들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분기점이 되어 삶의 환기로 이어지길 바란다.

3-2) 기호제거

나는 기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해 소수자로서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나의 목표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 규정²³⁾되는 형태를 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림 속의 인물들이 성 이분법적인 사고에 간혀 남/여로 해석되는 것을 해체하고자 했다.

23) 규정: 규율을 세워 바르게 정리함.

네이버 사전 -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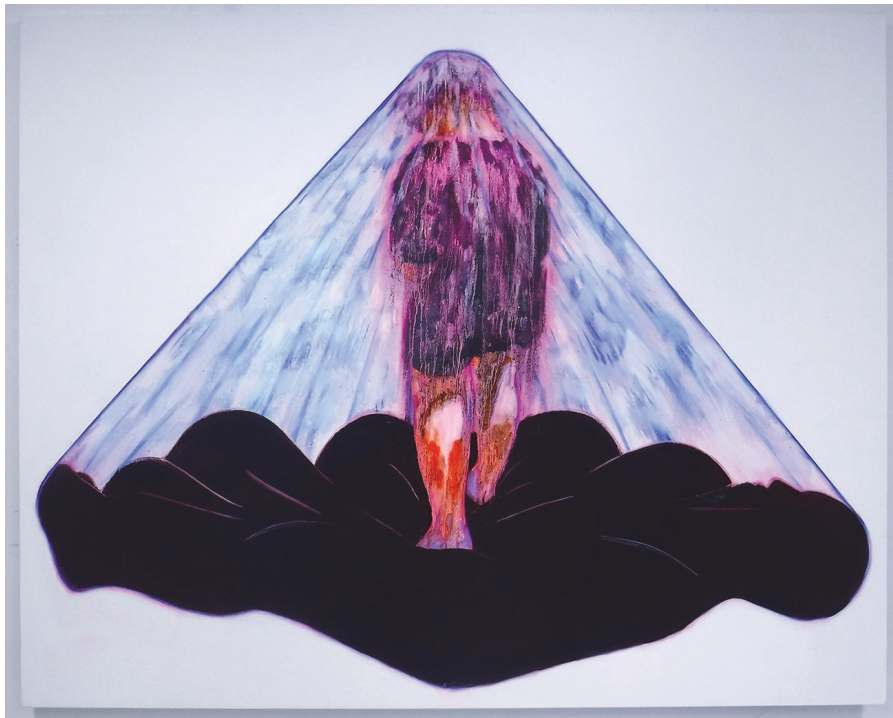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9f7ddd6ef0046f9a56a8bfbbe231d94>



[작품 4] <29>, 19.5×14.5cm, 종이에 연필, 2013

그림의 성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업 중에 ‘여성의 성기에 털이 있으면 여성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는 불쾌감을 느꼈다. 반론을 했지만, 강사는 입장을 고수했고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는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성별에 상관없이 성기의 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기에 털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해 그림에 대한 해석 차이가 어디서 오며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졌다.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신체의 모양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실험했다. 여성 또는 남성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들을 조금씩 줄이거나 완전히 표현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가슴과 허리 없애기, 남성의 어깨를 줄이기, 신체의 팔을 너무 가늘게 하거나 너무 두껍게 하지 않기, 머리카락을 길거나 혹은 너무 짧게 그리지 않기, 얼굴을 가리기 등의 표현으로 연결된다. 관객이 그림 안의 인물을 특정 성별로 언급할 때마다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성별을 추측할 수 있는 기호들을 가감하는 방식을 취했다.



[작품 5] <기억 났기01>, 130×162cm, 캔버스에 유화와 파스텔, 2020

<기억 났기01>의 삼각형의 막 안에 서있는 인물이 나온다. 인물이 났고 있는 어두운 형상은 기억을 사람의 모습을 추상화한 형태이다. 내가 삶에서 겪은 것들이 자신이 있는 환경을 이루기 때문에 발을 딛는 땅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인물은 그 속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만 갇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반팔과 반바지를 착용한 인물의 뒷모습이 보인다. 단단한 골격이지만 근육이 붙어 보이지 않는 신체는 성인이라기에는 덜 자라 보인다. 나는 이를 의도했는데 성인기의 신체는 나의 젠더퀴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에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처럼 보이는 것을 지양하고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신체로 보이도록 표현했다. 아직 완벽하게 자라지 않은 신체에 무궁무진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표현들이 해석의 여지를 더 다양하게 준다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의 내용보다 성별이 먼저 해석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림을 더욱 풍부하게 읽히게 하고 싶었다. 이는 나에게 사회의 당연한 시각에서 벗어나 예술적 시선으로 다르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림을 통해 얻는 시각의 확대로 인생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 표현 방법으로 인하여 나의 성 정체성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모습 또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3-3) 닳아내기

나는 ‘닳기’ 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억압했던 환경을 지우고자 한다. 캔버스 안의 재편성한 세상에 나의 자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와 나의 관계를 담고자 한다.

‘닳기’ 는 내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기법이다. 손과 기름, 휴지 등을 이용한 ‘닳기’ 는 화면의 신체와 공간 또는 선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아닌 일상에서도 우리는 닳는 행위를 자주 한다. 주로 이물질이나 먼지가 묻은 것을 닳아 새 물건처럼 만들거나 신체를 깨끗하게 한다.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 샤워를 하며 전신을 닳는다. 결국 ‘닳기’ 는 하나의 신체적 혹은 육체적 분기점을 만들어 상태를 전환

하는 역할을 한다.

나의 작품들은 삶의 뿌리와 존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규정에 대한 결과물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서 은폐한 나의 사건을 폭로한다. 그리고 유동적으로 변하는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앞의 두 가지를 화면 안에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뉘기’를 활용한다. 둘 다 뉘기를 활용하여 변화의 분기점을 만드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체와 공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쓰인다. 아래 두 작품을 통해 각각의 표현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6] <선 위의 열담자01>, 77×130cm, 캔버스에 유화와 파스텔, 2020

<선 위의 열담자01>는 흘러내리는 몸을 지탱해 겨우 기대어 있는 신체를 표현했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선에 인물이 몸을 걸쳤다. 전신으로 밀어도 끊을 수 없는 이 선은 보이지 않는 현실의 견고함을 이야기한다. 또한 나를 억압했던 환경을 백색의 공간으로 표현했다. 백색으로 도배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무한한 공포를 자아낸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백색이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현실 같다고 생각했다. 백색으로 인하여 배경은 두려움이 극대화된 공간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인물은 좌절하지 않는다. 인물은 저항을 통하여 공간과 관계를 맺는데 나는 이를 닦아내기로 표현했다. 첫 번째로 캔버스의 백색 공간에서 신체 쪽으로 닦이면서 흰 공간이 몸 안에 침투한다. 그다음 반대로 신체의 안에서 밖으로 닦아낸다. 이 반복적인 과정은 색이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면서 인물의 형태를 변형시킨다. 동시에 인물의 몸에서 나온 색이 하얀 배경에 묻어 공간 또한 색이 입혀지면서 변화한다. 결론적으로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인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기 다른 화면에 백색 공간 안에서의 생존과 탈출을 드러낸다.

<700년 동안 내가 해온 것> 연작에서 인물은 허공에 몸을 던져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저항을 한다. 자신이 몸이 분해될 정도로 몸을 던지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보다 패트roller의 비율을 더 늘려 첨가해 린시드 오일과 패트roller를 섞어 사용했고 그 결과로 묘사한 피부의 색이 보조제를 타고 아래로 흐른다. 이는 몸을 구성하는 선적 요소를 파괴해 색이 결국 신체 밖으로 퍼지게 한다. 결과적으로 인물은 저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녹여 백색의 환경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를 통해 한 인물이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했다.

건성 파스텔은 유화 다음으로 나의 작업에서 핵심 재료이다. 나는 신체와 공간의 선을 나타내는 용도로서 건성 파스텔을 택했다. 건성 파스텔은 픽사티브 없이 고정하기가 힘든 유약한 재료지만 파스텔의 물성 자체는 딱딱하다. 이는 나에게 이중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서 다가왔다. 공간 안에 존재하는 선을 이루는 파스텔에 소량의 오일을 첨가함으로써 오일 파스텔과 파스텔의 사이의 상태를 만든다. 결국 파스텔은 흠날리지 않는 딱딱한 상태로 성질이 변한다. 하지만 배경의 선에 쓰인 파스텔과 다르게 신체의 파스

텔은 위와 같은 드로잉 기법으로 시작하지만 오일로 파스텔을 굳히기보다 린시드오일과 패트롤을 혼합하여 대량으로 흘리거나 닦아내는 과정을 통해 신체를 이루는 틀을 깬다. 그리고 파스텔은 흐르는 오일의 중력과 지우는 손의 악력을 통해 공기로 날아가지 않고 화면 유화에 침투한다.



[작품 7] <700년 동안 내가 해온 것02>, 146×112cm, 캔버스에 유화와 파스텔,

2020

언뜻 보기에는 파스텔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나 유화를 닦아도 화면 안에 얼룩으로 남듯이 파스텔도 화면 안에 보이지 않는 고운 가루 입자가 유화와 섞인다. 이로 인하여 파스텔의 입자들은 화면 안에 퍼지는 동시에 스며들어 현존한다. 손과 휴지 붓 등으로 다양하게 지운 흔적과 흐른 기름이 유화와 섞이면서 표면에 유동성을 형성해 새로운 질감을 만든다. 그리고 이 새로운 면들은 신체 밖의 하얀색 배경으로 침투해 결국 인물이 주체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주는 과정을 담는다.

‘닦기’는 무언가를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지워진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완전히 다른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완벽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없지만 지움의 흔적이 남아 다양한 변수를 발생시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투영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환경에 순응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한정적이다. 또한 한계를 넘어 스스로 쟁취하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더 나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무기력함 앞에서 예술로 희망을 담는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김태연김도아: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 전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수자의 정체성을 발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서론에서는 논문 연구의 동기에 대해 밝혔으며 본문의 시작인 연구 배경 단락에서는 나의 경험 중심으로 사회 안의 소수자 차별과 소수자를 지우는 방식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안에 잔류하는 혐오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탐구한 방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했다. 첫 번째로는 소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체성 찾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를 습득하고 발화하는 것의 의의를 기술했다. 두 번째는 신체와 복장의 시각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뤘다. 마지막 방법은 환경적 요소의 이용이다. 나는 가상을 통해 환경의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서술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다음 장의 예술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정체성이 작품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과정을 기술하고 작품을 통해 정체성이 발화되는 이미지의 방식 연구를 기록했다.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작품을 통하여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자화상으로써 담아내는 방법을 다뤘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림 속 신체와 복장에 정체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했다. 끝으로 ‘땀기’ 기법은 인물과 환경의 관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긴장감을 생성해 화면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고 그들의 삶은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된 일화들이 나의 경험으로만 한정되는 것을 첫 번째 한계점으로 본다. 다음으로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이것이 나를 가장 많이 이루는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은 나의 정체성들이 교차해 발생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 방법은 풀지 못한 과제로서 아직 많은 탐구가 필요하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는 소수자의 정체성이 한계점을 생성하기보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생의 분기점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주류로서 단단한 자아로 살아남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듯이 스스로 탐색을 통해 삶의 다양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의 연구는 사회 안에서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희망을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나의 경험에서 시작된 이 논문이 소수자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들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네이버 지식백과 - 유방비대
<https://terms.naver.com/alikeMeaning.naver?query=88221203>
- 네이버 사전 - 부치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5ba12c8fcb44e2bb9b85aa1dbecac3a>
- 네이버 사전 - 팸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e35d179c9a6486fab66baad2183062b>
- 네이버 사전 - 표준화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1783362da6745a9ab1blad8a1b7015b>
- 네이버 사전 - 규정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9f7ddd6ef0046f9a56a8bfbbe231d94>
- 아즈마 히로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이은미 역, 문학동네, 2007
- 이정희, 「남아선호에 대한 지배담론과 저항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의 출산 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998
- 우치다 타츠루,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이경덕 역, 2010
- 에슐리 마텔, 「LGBT+ 첫걸음」, 팀 이르다 역, 2017
- 성과재생산포럼, 「배틀그라운드-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2018
- 정희진 외,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2017
- 허수빈, 「현대인의 타의적 정체성에 대한 회화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2020
- 월 아이스너, 「그림을 잘 엮으면 만화가 된다」, 이재형 역, 현실문화연구, 2000

ABSTRACT

A Portrait of Minority Identity

- Focusing on Researcher' s work -

DOA KIM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is written based on an art piece displayed on January of 2021 in the thesis show, named “~~Kim-Miyeon~~ Kim Doa: How to be the protagonist” and made by this writer.

As one carries on with life, everyone experiences failure. And people end up at the cross roads of choices. In my case, I have been a little lost while deciding to either give in to the system or fight against it. The sense of being slowly cut off from the society was accompanied by isolation and depression. I have tried diligently in numerous ways to release this pressure.

This thesis is based on life-long struggle of such. First, introduction begins with purpose of this study and it' s motive. Next, body consists of 3 chapters such as the following.

Chapter 1 analyzes Korean society's deeply rooted hate against the minority. This has close relations to my personal experiences such as sexual violence victim, woman, gender minority. We look into moments where minorities had to be left as an 'uncomfortable beings' despite the betterment of Korean society compared to before.

In chapter 2, somewhat theoretical solution to overcome such issues are introduced. For example, making a clear picture of what one wants to be through method of elimination. I introduce not only ways to achieve expressing oneself through gender identity related vocabulary, but ways to show one's identity through one's preferences and social environments.

In chapter 3, works by me will be introduced to solidly express the solution from previous chapter. I am projected entirely through the faceless body in the monitor. By through body expression using method of elimination, portrait of "me" is made. This chapter focuses on method of expression through "wiping", which is the core of this piece.

In conclusion, I was able to thoroughly analyze the problem ahead and give form to the anxiety I have suffered by expressing it artistically, not leaving anything out. This was liberating in some sense. Through aligning my action in life with artistic action, this I could firmly reestablish the new point of view of the world.

Through this thesis, I would like to look at particular issue this age is facing and suggest an artistic solution of a kind. Everyone wishes for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I also has hopes for this society, wishing for an equal and peaceful every-day-life. However, there are still sides to Korean society where minorities are shown in negative light. Identity should be a bountiful foundation to set one' s individuality on, not one' s source of anxiety. On this foundation, everyone may grow positivity fed with art, making the world a more vibrant place. As how art comes in various shapes and sizes, so does people. That is why Korean society needs to be able to see the world in different light through art. I hope for this thesis to help change hate against difference into hope for variety.